

가스보일러 효율등급 표시 무산

일반·콘덴싱 일원화 마찰로 합의점 못 찾아

가정용 가스보일러의 에너지 소비효율등급 일원화 계획이 무산됐다.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을 적용하려던 계획 자체도 백지화됐다.

산자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은 지난달 28일 가정용보일러의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표시와 관련한 3차 공청회를 열고 일반형 가스보일러와 콘덴싱 보일러의 에너지 소비효율 일원화 가능성 등을 점검했다.

하지만 콘덴싱 보일러를 생산하는 업체와 생산하지 않는 업체 간의 이견만 재확인하면서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콘덴싱보일러 생산업체는 일반보일러까지 포함해 에너지소비효율이 87% 이상인 경우 1등급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콘덴싱 제품을 생산하지 않는 귀뚜라미보일러는 1등급의 소비효율기준을 일반보일러는 84%, 콘덴싱은 87%로 달리 적용해야 한다며 팽팽한 의견 차이를 보여 왔다.

이에 따라 이들 보일러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일원화 계획을 철회하게 된 것.

에너지관리공단은 가스보일러를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표시 대상에 포함시키려던 계획도 백지화했다.

당초 에너지관리공단은 냉장고와 에어컨, 전기밥솥, 가스보일러 등 최저 효율 기준만 적용받는 4개 제품을 에너지 소비효율등급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당초 입장을 바꿔 가스보일러의 경우 등급

표시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결정한 것.

다만 고효율기자재 인증 기준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당초 입장을 확정했다.

산자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은 2007년 7월1일부터 일반형 보일러는 에너지소비효율이 84%이상, 콘덴싱은 87% 이상일 경우 고효율 인증을 부여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이외 보일러 시험성적서 발급기관을 가스안전공사에 가스석유기기협회까지 더하는 방안은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한편 가스보일러의 고효율인증 기준에 대해 관련 업계 대부분은 시행 시점 연기를 요청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귀뚜라미보일러를 제외한 생산사들은 일반형 보일러가 고효율 인증을 획득하기 위한 기준으로 에너지 소비효율 84%를 유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현재 시중에 팔리고 있는 일반형 보일러는 에너지 소비효율이 82%를 넘긴 제품들로 정부의 요구대로 효율을 상향조정 할 때마다 새로운 기술개발과 안전성, 내구성 등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시행시점을 늦춰줄 것을 요구중이다.

하지만 산자부와 에너지관리공단측은 시행에 앞서 2년간의 유예기간을 준 만큼 추가 연장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들 업체들의 입장이 관철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